



2018년 11월 11일(제901호)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나 이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나의 몸과 맘,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자유의 나라 희망의 나라 지금 여기에, 나 이제 돌아옵니다, 당신의 품으로-.”

‘봉헌’이라는 성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매우 낮게 시작하는 앞부분과 달리 마지막 부분의 음이 높다 보니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떤 때에는 성대를 봉헌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 이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는 구절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과도 비슷해 보이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봉헌의 지향점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다시금 새길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언제나 하느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향해 있다는 것, 오늘 복음에 나온 가난한 과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나온 그 과부의 헌금 액수가 조금은 비이성적으로 보입니다. 아니, 자기 먹고살 것은 남겨놔야지 자신의 생활비를 모두 넣다니! 대체 무얼 믿고,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느님이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넣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 전체, 곧 내 과거를 통해 쌓아온 지금과 그렇게 만들어가는 미래 전부를, 아버지 하느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버지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것’을 도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면 아까워서 못 줍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하느님의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원래 하느님의 것인데 하느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 주신 거라면, 내 것을 드리는 것보다는 더 쉬울 것입니다.

비단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도 따지고 보면, 나 스스로 얻은 게 아니지요. 부모님께서 계신 덕분에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나’는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완전한 내 것’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갖고 있다? 어떡하면 좋을까?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것, 바로 ‘나눔’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아니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특히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 목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과연 나 혼자 살라고 부여받은 생명일지, 아니면 더불어 살기 위한 생명일지 말이지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내가 쥐고 있어도 좋지만 다른 이들과 나눌 때 더 행복한 것들을 식별하고, 바로 그것을 기쁘게, 기꺼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영송(일베르토) 신부
회당(육군 11사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1열왕 17,10-16

회 답 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 2 독 시

히브 9,24-28

복음 관 호 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 음

마르 12,38-44

영 성 제 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김종한 인드레이



성인명: 김종한 인드레이 (金宗漢 Andrew)

신분: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816년

신자들 사이에서 ‘계원’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김종한(金宗漢) 안드레아는 충청도 면천의 솔피(현,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에서 태어났다. 족보에는 그의 이름이 ‘한현’(漢鉉)으로 나온다. 1814년에 순교한 김진후 비오의 아들로, 김 테레사 성녀의 아버지이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작은할아버지이다.

김 안드레아는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지 몇 년 뒤, 만형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이에 앞서 그의 만형은 ‘내포의 사도’라고 불리던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의 도움으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이를 가족에게 전해 주었다. 한편 김 안드레아의 부친인 김진후 비오는 처음에 입교를 거부하였으나, 계속되는 자식들의 권유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뒤에는 아주 열심인 신자가 되었다.

부친 김 비오가 박해를 받고 오랫동안 옥중 생활을 하였으므로, 그의 자녀들은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빨빨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다. 김종한 안드레아도 가족과 함께 홍주를 거쳐 경상도 영양의 우련밭(현,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으로 가서 오랫동안 숨어 살았다. 김 안드레아는 교리를 실천하는 데 아주 열심이었다. 끊임없는 기도 생활과 이웃을 위한 애공, 신심을 함양하기 위한 극기 행위는 거의 일상이 되었다. 낮에는 천주교 서적을 필사하여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밤에는 신자들을 자신의 집에 모아 놓고 가르쳤다. 또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노력하여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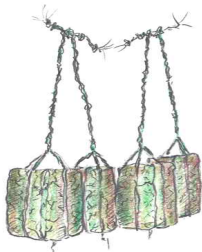
1815년 을해박해가 일어난 뒤 김 안드레아는 영양에서 체포되어 안동으로 끌려갔으며, 그곳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은 뒤 대구로 이송되었다. 그가 대구 감영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김윤덕 아가타 막달레나가 잠시 마음이 약해져 석방되어 감영 문을 나가고 있었다. 이것을 본 그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녀를 열성적으로 권면하였고, 이에 감화되어 그녀는 다시 관장 앞으로 나아가 신앙을 증언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김 안드레아가 신앙을 증언할 차례였다. 관장은 그의 마음을 돌려 보려고 형벌을 가하면서 배교를 강권하였으나, 그의 신앙은 여러 차례의 형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김 안드레아는 조용하면서도 곳곳하게 천주교가 진리임을 설명하였다. 그러자 감사는 그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김종한은 마음 깊이 천주교를 좋아하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도 천주교 서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익혀 왔습니다.”라고 조정에 보고하였다.

김종한 안드레아가 옥에 갇혀 있는 지 1년 6개월 정도가 되어서야 임금은 사형을 윤허하였다. 그러자 대구 감사는 즉시 천주교 신자들을 옥에서 풀어내 처형하도록 하였다. 이때 김 안드레아가 지도층 신자로 지목되어 제일 먼저 칼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그때는 1816년 12월 19일(음력 11월 1일)이었다. 김 안드레아의 시신은 형장 인근에 매장되었다가, 이듬해 3월 2일 친척과 교우들에 의해 그 유해가 거두어져 적당한 곳에 안장되었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메주 띄우기



간장이며
된장. 고추장
할 것 없이
모든 맛의 기본은
메주에 달려
있다고 하지

그래서
어머니께서
메주 띄우는 일에
그토록 정성을
다 했나 보다.

집 맛의
처음과 끝을
지키기 위해

난 무엇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사나.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상화이야기

엘리아 예언자와 사렙타의 과부



베르나르도 스트로지, 1630년경
캔버스 위 유화, 106x138cm
비엔나 국립미술관, 오스트리아

한눈에 보아도 카라바치의 영향이 확연히 보이는 이 그림은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엘리아 예언자와 사렙타 과부의 대화 내용을 그린 그림이다. 여인은 밀가루 바구니와 기름 동이에 손을 얹고 있으며, 아들은 빈 접시를 보이고 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인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고단했을까.

“가뭄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으로, 죽기 전에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던 사렙타의 한 과부는 엘리아 예언자를 믿었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궁핍한 가운데 하루 먹고 살 생활비를 모두 현금함에 넣는 과부의 모습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십니다. (중략) 그리스도교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한 희생 제물로 봉헌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기 비움으로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고, 죄와 죽음을 이겨내신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희망을 두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를 봅니다. 비록 현실은 어둡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은 시편 저자의 기도가 현실이 될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아멘!” - 매일미사 ‘오늘의 묵상’ 발췌(송용민 시도 요한 신부)

김은혜(엘리아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2주일: 광성대 김태현 신부

◆ 교구장 등장

- 총무대(해병1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11월 11일(주일)
- 제24회 한일주교교류모임
 때·곳: 11월 13일(화)~15일(목),
 의정부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

◆ 잇숨 성가대 정기연주회

때·곳: 12월 1일(토) 19:3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국군장병이 있는 곳이라면 전후방 어디라도 찾아가는 군중교구 잇숨 성가대에서 그간 불렀던 성가들을 엄선하여 테마별로 묶어 감사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주문의 :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군 복음회, 반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